

격주간 '브레일 타임즈' 제695호

등록번호 서울 다-05099

발행일 2012년 9월 10일

발행처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발행인 겸 편집인 최동익

전화 02-6925-1121 (담당 노상미)

팩스 02-6925-1117

주소 (우)150-87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로 22 (여의도동 17-13) 이룸센터 305호

~~~~~

## 목차

포커스: 한강을 가슴으로 / 조영관(법학 박사, 시각장애 1급)

장애인계 뉴스

1. 시각장애 유도선수 최광근, 허리후리기 한판으로 런던장애인올림픽 금메달
2. 2012 아시아 시각장애인 볼링선수권대회, 우리나라 대표팀 종합우승 차지
3. 시각장애인 보험가입 시 활동보조인 신분증 요구는 차별
4. 방통위, 장애인·저소득층 이동전화 요금감면 확대실시
5. 대형마트 홈페이지, 장애인 고객은 외면
6.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장애인에게는 무용지물
7. 삼성생명,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보안카드 발급
8. 시각장애인계 인사 동향...박사학위 취득한 정지훈 라파엘의 집 원장과 국민훈장 동백

장 받은 김원제 대린원 원장

기획: 새로운 밀레니엄이 시작되던 2000년 가을, 우리는...

독자마당: 샌프란시스코에서 보낸 잊지 못할 한 달 / 이정현(광주세광학교 고등부, 2012 시각장애 고등학생 어학연수 참가자)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장 동정[8월 16일~8월 31일]

알쏭달쏭한 우리말 바로 알기(163)

~~~~~

포커스

한강을 가슴으로

조영관(법학 박사, 시각장애 1급)

나는 40년 가까이 한강을 바라보며 지내왔다. 제일 처음 한강을 건넌 것은 10대 중반의 일이다. 그때 나는 기차를 타고 서울로 향하고 있었다. 완행열차가 종착역인 용산역에 도착할 때쯤 새벽 미명에 갑자기 크고 검은 물줄기 하나가 나타났다. 그 물줄기가 한강이라고 했다. 시골에서 개울만 보아 왔던 소년에게 한강은 마치 공룡과도 같아 보였다. 강이 그렇게 크고 물이 그렇게 많을 수가 없었다. 그 강은 개울에서 놀듯이 그렇게 호락호락할 것 같지가 않았다. 내가 가까이 다가서면 그 물줄기가 나를 삼킬 듯이 사납게 달려들 것만 같았다.

그런데 이제 나는 그 한강을 가슴으로 건너고자 한다. 다리 위로 건너는 것이 아니라 물 위로 팔을 저으며 건너려는 것이다. 예전에는 서슬이 퍼런 이 강을 아무런 생각도 없이 지나다녔다. 그렇게 자주 차로 지나다니면서도 나는 그 물줄기에 살가운 눈길 한 번 주지 않았다. 가끔은 둔치에 나와 강변을 따라 걸으면서 답답한 마음을 강물에 실어 보내기도 했다. 그러나 물길 곁에는 감히 다가설 엄두조차 내지 못했다. 어른이 되어서도 이 강은 여전히 내게 공룡으로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늘은 내가 이 물줄기를 헤엄을 쳐서 건너려는 것이다. 꿈에라도 내가 이 강을 건너리라고는 상상조차 해보지 못했다. 그런 일은 있을 수도 없고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런데 이 불가능한 일이 현실이 되어 내 앞에 다가서고 있는 것이다. 더군다나 나는 이제 실명하여 아무 것도 보지 못한다. 환히 보고서도 두려워했던 그 물줄기를 이제 나는 어두움 가운데서 건너려고 하는 것이다. 그 때 내 발걸음은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무거웠다. 이렇게 뒤뚱거리는 몸으로 내가 무난히 한강을 건널 수 있을까? 건너가더라도 중도에 안내자의 도움을 받지 않고도 그 끝에 설 수 있을까? 그러나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다. 이제 더 이상 뒤로 물러설 수는 없다. 더군다나 같이 건너야 할 사람들 중에는 여성들도 있다. 팔 다리가 불편한 사람들도 있다. 저들도 한강을 건너겠다고 저렇게 기다리고 있지 않은가!

사실 한강을 건너겠다고 했을 때 가장 완고하게 반대한 사람은 아내였다. 아내는 내 능력을 믿지 못해서가 아니라 내 건강이 염려스러웠던 것이다. 그래서 선착장으로 가는 아침에도 아내는 생각을 돌이킬 수 없느냐고 다시 한 번 채근을 했다. 나는 지난 7년 동안 두 번이나 중풍으로 쓰러졌다. 이것 때문에 아내는 마음고생을 많이 했고 나는 아내로부터 많은 빚을 지고 있다. 또 무슨 일이라도 일어나면 그것은 온전히 아내의 몫이다. 그래서 아내의 만류를 뿌리치기가 무척 부담스러웠다. 아직도 왼쪽 팔과 다리가 저리고 힘이 없다. 수영을 하다 보면 왼쪽이 힘이 없어서 자꾸 한 쪽으로 기운다. 혹이라도 중간에 혈압이 생기면 어떻게 하나? 혹이라도 나로 인해 행사를 진행하는 사람들에게 누가 되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교차하면서 나는 당일까지도 마음이 착잡했다.

그러나 시간이 임박하면서 내 발걸음은 나도 모르게 선착장으로 향하고 있었다.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있었다. 선착장에 서니 물결이 잔잔하게 찰싹거렸다. 그 소리를 듣자 마음이 차분해지고 오히려 설레 이기까지 했다. 한 번 도전해보고 싶었다. 한 번 시작한 일이니 끝을 보고 싶었다. 드디어 우리는 물속으로 뛰어 들었다. 그리고 땅에서 발끝을

치켜 올렸다. 그랬더니 몸이 물 위로 훌쩍 솟아올랐다. 물이 가벼웠다. 생각보다 물줄기가 편했다. 물살이 꺾전에 맴돌자 가는 길이 바빠지기 시작했다. 물길을 타자 마치 공룡의 등줄기를 타고 가는 듯한 짜릿함이 느껴지기도 했다. 안내자가 카운트다운을 해주기까지는 이 길을 내쳐 가야만 하는 것이다.

그 때 갑자기 어린 시절 친구들과 함께 저수지를 건넌던 추억이 생각났다. 대여섯 명의 친구들이 저수지를 한 번 건너 가보자고 다짐했다. 친구 중에 누구도 헤엄을 쳐서 그 물 끝을 밟아보지를 못했다. 그들 모두는 그 자리에 우뚝 선 주인공이 되고 싶어 했다. 그래서 모두들 그 꿈을 이루기 위해 환호성을 지르며 물을 헤쳐 나가기 시작했다. 나도 뒤질세라 뒤를 돌아보지 않고 앞으로 앞으로 나아갔다. 얼마나 갔을까! 갑자기 사방이 조용했다. 둘러보니 같이 오던 친구들이 보이지 않았다. 그제서야 뒤를 돌아다보았다. 아뿔싸! 녀석들이 다시 돌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물 한가운데 나 혼자만 남아 있었다. 순간 두려움이 엄습해왔다. 물은 점점 차가워지고 떠나 온 물은 멀어져 있었다. 둘러보니 나는 저수지 한가운데를 지나가고 있었다. 돌아가기에는 너무 멀리 와버린 것이다. 그 때 번뜩 한 생각이 떠올랐다. 돌아가는 것이나 건너가는 것이나 피장파장이 아닐까? 그랬다. 그 때 나는 주저하지 않고 건너가는 길을 택했다. 지나온 길은 더 이상 바라다보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친구들과 가운데서 가장 먼저 우리 모두가 소망했던 그 땅 끝에 서보는 영광을 안을 수 있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나는 앞을 향해 질주했다. 가다 보니까 여유도 생겼다. 나중에는 여러 가지 영법을 바꾸어 가면서 마음껏 팔을 내저었다. 멀찍이서 봉사자가 외쳤다. "접영으로 오세요." "나비처럼 팔을 한 번 저어 보세요." 정말 한 번 그렇게 해보고 싶었다. 강 한가운데서 접영으로 한강을 힘껏 안아보고 싶었다. 민족상잔의 비극을 딛고 현대사의 기적을 일구어낸 그 물줄기와 나는 하나가 되어 뒹굴어보고 싶었다. 그럴만한 힘이 내게 남아 있었고 물결도 충분히 탈 수 있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끝내 나는 그렇게 하지 못했다. 나는 겁 장이었다. 아직도 가야할 끝이 어디인지 알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혹이라도 중간에 탈진할까봐 나는 염려스러웠던 것이다. 나중에 안 일이지만 내가 지나가던 그 길목에서 기자가 우리들이 수영하는 모습을 열심히 카메라에 담고 있었다고 한다. 선생은 카메라에 잡힐 수 있는 영광을 연출하고 싶었다고 했다. 그리고 그것으로 우리 마음에 오래 남을 추억을 선물하고 싶었다고 했다. 그러나 아쉽게도 나의 작은 가슴 때문에 선생의 아름다운 소망은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얼마쯤 갔을까? 갑자기 파도가 크게 일렁였다. 이제 나는 한강의 큰 물줄기를 지나가고 있었다. 이 고비만 넘기면 강의 끝은 얼마 남지 않았으리라...그 때 나는 한강의 채취를 마지막으로 가슴에 담고 싶었다. 그래서 몸을 훌쩍 뒤집어 배영의 자세를 취하고 하늘을 바라다보았다. 그리고 심호흡을 했다. 코끝에 바람이 스치었다. 민물의 비릿한 냄새와 살을 스치는 잔바람이 상큼하게 다가왔다. 그 때 내 몸은 물 위에 띄워 놓은 작은 나룻배였다. 그 배는 파도와 조류를 거슬러 이제 새 희망을 노래하고 있었다. 멀지 않은 곳에서 봉사자들의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 왔다. 끝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이다. 그들의 갈채를 받으며 빼격거리는 내 몸뚱이는 안전하게 둔치에 접안할 수 있었다. 손끝이 땅에 닿았다 나는 드디어 한강을 가슴으로 건넌 것이다. 그 순간 한강은 내게 작고 사랑스러운 아기공룡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

## 장애인계 뉴스

### 1. 시각장애 유도선수 최광근, 허리후리기 한판으로 런던장애인올림픽 금메달

시각장애인 유도선수 최광근(25·양평군청)선수가 2012 런던장애인올림픽 남자 유도 100kg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며 그랜드슬램을 달성했다.

장애인 유도종목에서 메달이 나온 것은 지난 2000년 시드니대회에서 안유성(현재 시각장애유도 대표팀 코치)선수가 동메달을 딴 이후 12년 만이다

최 선수는 지난 9월 2일 오전(한국시각) 영국 런던 엑셀 노스아레나 유도경기장에서 열린 런던장애인올림픽 남자유도 100kg 결승에서 허리후리기 한판으로 마일스 포터(미국)를 경기시작 45초 만에 꺾고 우승을 차지했다.

초등학교 때부터 유도를 해온 최광근 선수는 고등학교 2학년이던 2004년 전국체전을 앞두고 연습을 하던 중 망막박리로 중도시각장애인이 되었다.

장애를 갖게 됐어도 유도를 포기할 수 없었던 최 선수는 시각장애 유도로 종목을 바꾸고 한국체대에 장학생으로 입학했다. 그 후 2010년 광저우 아시안게임, 2011년 세계시각장애인스포츠클럽(IBSA) 세계종합선수권대회 -100kg 개인전에서 1위를 차지했다. 이번 런던장애인올림픽에서 금메달을 추가함으로써 그는 그랜드슬램을 달성했다.

최광근 선수를 비롯한 시각장애유도선수단은 지난 9월 5일 입국해 휴식을 취하고 있다.

### 2. 2012 아시아 시각장애인 볼링선수권대회, 우리나라 대표팀 종합우승 차지

지난 8월 19일부터 26일까지 서울에서 열린 '2012 아시아 오픈 시각장애인 볼링선수권대회'가 대한민국이 종합우승을 차지하며 성공적으로 막을 내렸다.

이번 대회는 개인전, 2인조경기, 3인조 경기, 4인조 경기, 개인종합 등 총 10개의 종목으로 진행되었으며,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말레이시아, 일본, 체코, 홍콩 등 총 5개국 60여명의 선수단이 참가하였다.

12명의 선수로 구성된 우리나라 선수단은 전 종목에 출전하여 금메달 9개, 은메달 3개, 동메달 7개로 종합우승을 차지하며 지난해 열린 세계시각장애인볼링 선수권대회에 이어 다시 한 번 세계 최강의 실력을 과시하였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2014년 인천 장애인 아시안게임에서 시각장애인볼링 전 종목 석권의 목표에 한발 더 다가서게 되었다.

한편, 이번 대회의 후원사인 한국스탠다드차타드저축은행(대표 정영석)은 7월 한 달 동안 정기예금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불우이웃을 위한 기부에 참여하면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이벤트를 실시하였으며 모금액 전액을 본 대회의 후원금으로 전달하기도 했다.

우리나라 선수단의 입상 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 개인전 TPB1(전맹) - 금메달 김정훈
- ▲ 개인전 TPB2(약시) - 금메달 김남훈, 은메달 김판권, 동메달 김재철
- ▲ 개인전 TPB3(약시) - 금메달 배진형
- ▲ 2인조(B1+ Any Class) - 금메달 김정훈·배진형
- ▲ 2인조(B2+ B2) - 금메달 김재철·도학길, 동메달 김남훈·김판권

- ▲ 3인조 - 은메달 오택근·이창숙·배진형, 동메달 김정훈·김복희·김재철
- ▲ 4인조 - 금메달 남상임·김관권·도학길·배진형, 동메달 박순애·김재철·김남훈·이용태
- ▲ 개인종합 TPB1 - 금메달 김정훈, 동메달 오택근
- ▲ 개인종합 TPB2 - 금메달 김재철, 은메달 김관권, 동메달 도학길
- ▲ 개인종합 TPB3 - 금메달 배진형, 동메달 이용태

### 3. 시각장애인 보험가입 시 활동보조인 신분증 요구는 차별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 이하 인권위)는 시각장애인 본인이 아닌 활동보조인의 신분증이 없다는 이유로 보험계약을 거부한 것은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지난 8월 29일 밝혔다.

시각장애인 박모 씨는 올해 3월 보험계약 체결을 위해 한 보증보험회사에 직접 방문했지만 시각장애인 당사자가 아닌 활동보조인의 신분증이 없다는 이유로 보험계약 체결을 거부했다.

이에 대해 보험사는 활동보조인의 신분증을 요청하게 된 것은 시각장애인이 청약서류를 직접 볼 수 없으므로 동행한 활동보조인에게 청약내용을 설명해주고 그에 대한 확인을 위해 활동보조인의 신분증을 확인하게 된 것이며, 이는 「보험업법」에 따른 것으로 불완전 판매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당일 오후에 설계사가 시각장애인의 집을 방문하여 활동보조인 신분증을 확인한 후 보험계약을 체결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과 「보험업법」에서는 보험가입 등 금융상품과 서비스 제공, 보험계약의 체결 등에 있어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차별하거나 보험가입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권위는 보험가입을 원하는 시각장애인에게 구두로 보험상품 및 보험가입에 필요한 중요사항 등을 직접 설명할 수 있었다는 점, 활동보조인이 가족도 법정대리인도 아닌 이상 보험계약 체결 등과 같은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자격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해 결과적으로 시각장애인에게 보험증권을 발급했다라도 당초 활동보조인의 신분증이 없다는 이유로 보험계약체결을 거부한 행위는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는 금융위원회위원장, 금융감독원장에게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개선과 함께 보험사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했다.

### 4. 방통위, 장애인·저소득층 이동전화 요금감면 확대 실시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계철, 이하 방통위)는 장애인·저소득층 요금감면제도 개선, 번호안 내서비스 및 공익성심사제도 정비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2012년도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지난 8월 3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장애인·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대한 요금감면제도를 이용자 편의 및 통신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체계적으로 정비했다. 우선 유선전화(시내·시외·인터넷전화)와 초고속인터넷서비스의 경우, 장애인·유공자도 요금감면 신청 자격을 ‘수급자가 포함된 가구’로

확대하여 가구원 중 누구라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한 이동전화 요금감면 서비스의 범위를 ‘아이엠티이천(3세대) 서비스 및 그 이후에 도입된 이동통신서비스’로 확대해 4세대 이동통신(LTE, 4G)과 휴대인터넷(와이브로) 서비스를 새로 추가했다.

이와 더불어 가입자 주소를 읍·면·동 단위까지만 안내하도록 규정된 현행 번호안내서비스(114)를 상호명 가입자의 경우 읍·면·동 단위 이하의 상세주소까지 안내할 수 있도록 하여, 114로 안내 받은 상세주소를 내비게이션에 입력하여 길 찾기를 할 수 있게 하는 등 실생활에 편의를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개정되었다.

이계철 위원장은 “모든 국민이 소외되는 계층 없이 다양한 통신서비스를 고루 누릴 수 있도록 저소득층·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요금감면 제도를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평가하고, “앞으로도 통신시장 환경변화에 따른 이용자 보호 대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통해 관련 부처, 사업자,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이르면 내년 초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 5. 대형마트 홈페이지, 장애인 고객은 외면

대형마트 홈페이지가 장애인들이 사용하기에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부설 한국웹접근성평가센터가 국내 대표 대형마트 4곳의 홈페이지에 대한 웹 접근성을 평가해 보니 평균이 39.4점으로 매우 낮았다.

웹 접근성이 가장 낮은 곳은 홈플러스로 겨우 25.9점을 받았다. 롯데마트몰이 최고 점수를 받았지만 가까스로 50점을 넘긴 51.5점에 불과했다. 이마트는 46.9점, NH쇼핑은 33.1점이었다.

이들 홈페이지는 주메뉴 및 카테고리를 웹 접근성 기준에 맞게 제공하지 않아 시각장애인이나 상지 지체장애인 및 뇌병변 장애인 모두가 주 메뉴를 통해 홈페이지의 콘텐츠를 개략적으로 이해하고 키보드 포커스를 이동시켜 탐색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 특히 홈플러스와 NH쇼핑은 주 메뉴 영역으로 아예 키보드 포커스가 이동하지 않았으며, 롯데마트몰은 키보드로 메인메뉴의 하위메뉴 영역을 열 수 없었다.

또한 주 메뉴, 하위메뉴, 본문 등 페이지의 주요 영역으로 빠르게 이동하도록 하는 바로가기 링크를 네 곳 모두 전혀 제공하지 않았다.

무엇보다 상품 정보의 일부 내용을 이미지로 제시하고 있으면서도 시각장애인이 화면읽기 프로그램으로 이미지에 표현된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대체텍스트를 제공하지 않았는데 이로 인해 시각장애인은 상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기가 어려웠다.

한국웹접근성평가센터 강완식 소장은 “인터넷 쇼핑 사이트의 경우 접근성이 부족하면 화면을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없고 제시된 정보를 오해할 소지가 높아 장애인은 올바른 소비를 할 수 없다”면서 “장애인 소비자들이 손해를 보지 않도록 웹 접근성을 고려해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이번 평가는 7월 16일부터 7월 27일, 전맹 시각장애인, 저시력 시각장애인, 지체/뇌병변 장애인 각 1인이 참여하였으며, 국가표준인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에 근거하여 만족도를 평가하는 방식으로 실시됐다.

## 6.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장애인에게는 무용지물

최동익(민주통합당) 의원실과 실로암웹접근성지원센터가 국내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애플리케이션(이하 앱) 상위 30위에 대해 접근성을 조사한 결과 대부분 장애인이 이용하기에 부적합한 것으로 평가됐다.

행정안전부 고시 '모바일어플리케이션지침 1.0'을 기준으로 방송, 교통, 금융 등 30개 모바일 앱을 조사한 결과, 전체 평균점수가 64.1점으로 나타났다.

'KBS', '쿠팡', '케이웨더' 등 18개 앱은 정상적인 사용이 불가능했으며, 그나마 접근성이 양호한 수준에 해당하는 앱은 '지하철헬퍼', 'YTN 뉴스', '멀티영어사전' 등 7개에 불과했다.

대부분의 앱에서 이미지에 대한 대체 텍스트가 거의 달려있지 않아 의미 있는 이미지와 버튼의 기능을 제대로 인식할 수 없었으며, 입력 서식에 적절한 힌트가 제공되지 않아 무엇을 입력해야 하는지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또한 각 버튼들에 포커스가 위치하지 않아 조작성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았으며, 표준 입력 컨트롤을 제공하지 않음으로 페이지 넘김(슬라이딩) 조작성이 불가능했던 경우도 있었다.

최동익 의원은 “국내 스마트폰 보급률이 80%(2012마케팅인사이트조사)를 웃도는 시점에서 인터넷 강국에 걸맞지 않은 결과이며, 앞으로는 모바일 앱에서도 접근성은 선택이 아닌 필수로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 7. 삼성생명,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보안카드 발급

삼성생명은 지난 8월 30일 전국 고객플라자를 통해 '점자보안카드' 발급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점자보안카드는 '장애인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장애인의 전자금융서비스 이용 편의 확대를 위해, ARS 등 전자금융거래에서 필수 입력사항인 보안카드를 점자로 제작한 것이다. 사용법과 비밀번호(난수표)가 포함되어 있으며 은행통장 크기 정도로 기존 보안카드보다 크다.

발급을 원하는 시각장애인은 신분증을 가지고 고객플라자를 방문하면 된다. 거래방법은 기존 보안카드와 동일하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그동안 점자보안카드 발급을 요청받은 사례는 거의 없었지만, 시각장애인의 입장에서도 편리하게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점자보안카드의 발급을 시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 8. 시각장애인지게 인사 동향...박사학위 취득한 정지훈 라파엘의 집 원장과 국민훈장 동백장 받은 김원제 대린원 원장

국내 최초의 시각중복장애인 요양시설인 '여주라파엘의 집'을 26년 넘게 운영해오고 있는 정지훈 원장이 대구대학교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정 원장은 지난 8월 24일 대구대학교 학위수여식에서 일반대학원 특수교육과 시각장애아 교육전공으로 문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더욱이 정지훈 원장은 올해 초 뇌출혈로 쓰러진 적이 있어 건강상의 이유로 학업을 이어가기가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꾸준한 자기관리와 노력으로 학위를 취득했다.

그의 박사학위 논문은 '시각중복장애학생 어머니의 양육환경과 양육부담감이 건강관련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으로, 시각중복장애인을 자녀로 둔 어머니들의 건강이 본인들의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내용이다.

정지훈 원장은 시각중복장애인 뿐만 아니라 장애인 부모들의 교육과 상담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 왔으며, 93년부터 부모모임을 진행해오고 있다.

정지훈 원장은 비인가 시설이던 라파엘의 집을 생활시설·치료센터·직업재활센터·노인복지시설 등을 갖춘 시각중복장애인재활센터로 자리매김 시킨 공로로 올해 4월 장애인의 날 기념식에서 국민훈장 모란장을 수상하기도 했다.

김원제 대린원 원장은 지난 9월 7일 사회복지의 날을 맞아 국민훈장 동백장을 받았다.

김 원장은 대학교를 졸업하고 이듬해인 1971년 맹인대린원 사무국장으로 입사해 2년 뒤인 1973년에 시설장으로 취임한 이후 40년간 시각장애인과 중증장애인, 불우노인 200만 명을 보호하고 교육시켜왔다.

이 과정에서 그는 31억이 넘는 사재를 출연했으며, 대린원을 외에 흥파양로원, 쉼터중증요양원, 영기노인전문요양원 등을 건립해 소외계층이 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었다.

사회복지 유공자 시상식은 9월 7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13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에서 진행됐다.

~~~~~

기획

새로운 밀레니엄이 시작되던 2000년 가을, 우리는...

런던장애인올림픽에서 시각장애 유도 종목 최광근 선수가 금메달을 딴 것이 연일 화제가 되고 있다. 유도종목에서 메달을 딴 것은 지난 2000년 시드니장애인올림픽대회에서 안유성 선수의 동메달 이후 12년만이다. 당시 시드니장애인올림픽에는 안 선수를 비롯해 총 3명의 시각장애인 유도선수가 출전했었다. 안유성 씨는 현재 시각장애 유도 국가대표팀 코치를 맡고 있다.

당시 브레일 타임즈에서도 시각장애 유도 대표팀 출전에 관한 기사를 다루었다. 2000년 시드니장애인올림픽 기사를 비롯해 당시 어떤 뉴스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강산도 변한다는 10년보다 긴 시간이 흐른 지금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이번 호 기획 코너에서는 세월의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한다.

2000년 시드니장애인올림픽에는 전체 18개 종목에 7,000명의 선수단이 참가했으며, 우리나라는 13개 종목에 125명의 선수단이 출전했다. 12년이 지난 올해 런던장애인올림픽에는 총 20개 종목에 7,000명의 선수단이 참가했고 우리나라는 그중 12개 종목에 149명의

선수단이 출전했다. 시드니 때와 비교해 숫자가 크게 늘지는 않았다.

시드니올림픽이 열릴 때쯤 우리나라에서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원서접수가 진행되고 있었다. 2000년 9월 중순에 마감된 2001학년도 대학수학능력 시험 원서접수 결과 65명의 맹학교 학생이 대입에 도전했으며, 이듬해 38명이 대학에 진학했다. 그렇다면 올해는 어땠을까. 맹학교 졸업생 중 대학(전문대 포함)에 진학한 학생은 총 51명이었다.

당시 시각장애인계에서는 시각장애인들의 방송접근권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시각장애인 방송접근권 확대를 위한 결의대회도 열렸는데,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는 9월 18일 여의도 KBS 본관 옆에서 연합회 회원 4백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 서비스를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

지난해, 10년이 넘는 세월동안의 노력이 결실을 맺었다. 화면해설방송 10%편성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시·청각 장애인의 방송접근권 보장을 위한 '장애인방송 가이드라인'이 2011년 6월에 제정·공표된데 이어, 12월에는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가 시행된 것이다.

이로서 KBS, MBC, SBS, EBS 등 중앙 지상파 방송사는 2013년까지, 지역 지상파 방송사는 2015년까지 전체 방송프로그램 중 10%를 의무적으로 화면해설방송으로 편성해야 한다.

다음으로 장애인전용보험 도입에 관한 내용도 당시 브레일 타임즈에 보도되었다. 2001년부터 장애인 전용보험 상품이 도입되고 장애인에 대한 일반 보험가입 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장애인 보험 개선방안'을 실시하기로 한 것이다.

장애인보험 개선방안에 따라 그동안 보험사에서 내부 심사기준으로 정해온 장애인에 대한 가입거절, 가입금액제한, 보험금 삭감 등 차별조항이 없어지게 되었다.

당시 적용상품은 암, 종신보험 등이었다. 그리고 12년이 지난 올해 좀처럼 열리지 않던 '의료실비보험'도 장애인에게 개방됐다. 한국장애인부모회가 보험사들과 함께 발달장애 및 시각·청각장애인을 위한 의료실비보험을 올해 7월 출시한 것이다.

발달장애인이라면 만 5세부터 60세까지, 시각·청각장애인은 나이에 상관없이 가입이 가능하다.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보험이 대부분 가입 대상에 제한을 둔 것과 달리 가입 문턱을 크게 낮아진 것이다. 또한 비장애인들이 의료실비보험을 통해 받는 혜택을 장애인도 동일하게 누리도록 했다.

화면해설방송의 의무편성도 시각장애인 선수의 올림픽 금메달 획득도 결국은 장애인 당사자들의 꾸준한 노력이 부른 변화라고 생각한다. 지금 당장은 끝이 보이지 않는 느린 걸음일지라도 시간의 흐름과 함께 그 결실을 맺어가고 있다고 믿고 싶다.

~~~~~

## 독자마당

샌프란시스코에서 보낸 잊지 못할 한 달

이정현(광주세광학교 고등부, 2012 시각장애 고등학생 어학연수 참가자)

처음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했을 때 가장 인상적인 점은 한국과는 다른 건조하고 쌀쌀한 날씨와 사뭇 다른 풍경이었다. 특히 금문교를 지날 때 본 안개 덮인 도시의 모습은 아직도 눈앞에 생생하다. 그 곳에서 한 달을 지낼 생각을 하니 기쁨보다는 가족들과 떨어져 지낼 걱정, 한 달 동안 많은 것을 배워가야 한다는 부담이 더 컸다.

샌프란시스코공항에 도착한 뒤 40분정도 차를 타고 산 라파엘에 있는 도미니칸 대학에 도착했다. 대학 내에는 다양한 종의 나무들이 그늘을 만들고 있었다. 기숙사에 도착해 짐을 풀고 방을 같이 쓰게 될 분과 인사를 나누었다. 첫날밤에는 오랜 비행에 지친 탓인지 생각보다 일찍 잠자리에 들 수 있었다.

다음 날에는 앞으로 공부하게 될 반을 배정 받기 위해 반편성 시험을 봤다. 시험절차는 els선생님들과의 간단한 면담 그리고 문법과 작문시험이었다. 시험 후에는 기숙사에서 휴식을 취하고 다음날부터 있을 수업을 준비했다. 첫째 주의 수업은 교과서 위주의 강의보다는 다른 나라 친구들과 친해질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그 시간을 통해 영어말하기에 대한 자신감도 커지고 외국인 친구들과 좀 더 친해질 수 있었던 것 같다.

첫째 주 토요일에는 뮤어우드국립공원과 소살리토(샌프란시스코에 위치한 휴양마을: 편집자 설명)를 방문했는데 뮤어우드는 한국에서는 볼 수 없는 큰 나무들을 볼 수 있어 좋았고 소살리토는 항구도시의 풍경을 볼 수 있어 좋았다.

일요일에는 대학에서 십분 정도 거리에 있는 산 라파엘 한인 장로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다. 미국에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었다는 게 좋았고 교회 관계자 분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따뜻하게 대해 주셔서 한주를 되돌아보고 마음이 편안해지는 시간을 보냈다.

2주차에는 본격적인 수업에 들어갔다. 교과서에 있는 듣기와 문법을 통해 부족했던 기초 영어 실력을 보충할 수 있었고 수업 시간 중에도 파트너 활동을 통해 다른 친구들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방과 후에는 잉글리시 클럽에서 다른 반 친구들, 미국에 사는 분들과 만나 많은 대화를 나누었고 체육관을 방문해 다양한 운동기구를 체험해보기도 했다.

그 주 토요일에는 주립대학에서 근무하시고 계시는 홍성계 교수님과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라이트하우스와 도서관을 방문했다. 라이트하우스에는 시각 장애인들이 사용하기 편리한 다양한 전자 기기들과 교육 프로그램이 있어 직접 설명을 듣고 기기들을 직접 체험할 수 있어 좋았다. 도서관에는 여러 나라의 책들을 모아둔 층이 따로 있다는 점이 정말 신기했다. 홍 교수님께서 저녁식사에 초대해주셨는데, 맛있는 식사도 하고 교수님의 마음이 담긴 많은 조언과 충고를 들을 수 있어 정말 좋은 시간이 되었다.

세 번째 주에는 중간시험을 보았다. 시험은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 3분정도 발표하는 것이었는데 다른 사람들 앞에서 영어로 발표한다는 것이 처음에는 너무 힘들었지만 한주가 마무리 될 즈음에는 이전보다 긴장하지 않고 자신 있게 발표를 할 수 있었다.

수업이 끝난 금요일 오후에는 스탠포드대학과 구글 본사를 방문했다. 스탠포드 대학은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만큼 웅장한 건물들이 많았다.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대학 내에 있는 크고 웅장한 성당이였다. 성당의 내부는 꼭 중세시대의 성당을 보는 것 같아 다른 건물들보다 인상 깊었다. 구글 본사에서는 그 곳에서 일하시는 시각장애인 개발자 티비 라만 씨를 직접 만났는데, 그 분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시각장애인이 도전할 수 있는 새로운 분야의 직업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었다.

그 주 토요일에는 샌프란시스코 시내 관광을 했다.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시내도 가보고 바닷가도 가보면서 마지막 남은 한주를 어떻게 보낼지 계획하고 그곳에서 보낸 시간을 돌이

켜보았다.

주말에는 교회에서 작은 공연을 했다. 교회에 오기 전 친구들과 함께 찬양을 연습하며 준비한 공연이었는데 그동안 우리를 도와주셨던 교회관계자분들께 조금이나마 감사인사를 전한 것 같아 기분이 좋았다.

마지막 주는 바쁘게 지나갔다. 선생님들은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것을 복습해 주시고 목요일에 졸업시험을 보았다. 시험은 어려웠지만 끝까지 노력해서 문제를 풀었다. 다음 날인 금요일에 시험 결과가 나왔고 졸업식을 치렀다. 같이 갔던 친구들도 시험에 합격해 함께 졸업할 수 있어 정말 기뻐했지만, 한편으로는 한국에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에 아쉬웠다.

한 달 동안 그곳에 머물며 영어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다는 점도 좋았지만, 이번 해외어학연수는 집에서만 생활했던 내게 단체생활을 통해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같이 생활하는 법, 나보다 몸이 불편한 친구들을 돕는 법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무엇보다 미국에 있는 동안 수업 중이나 이동 중에 궁금한 것이나 잘 못하는 것이 있을 때 항상 친절하게 가르쳐 주셨던 els선생님들, 한 달 동안 서로를 돕고 챙겨줬던 친구들 그리고 부모님들과 떨어진 낯선 곳에서 우리가 잘 지낼 수 있게 도와주셨던 인솔자 선생님이 있어 이번 어학연수가 더욱 뜻 깊었던 것 같다. 한 달이라는 시간동안 영어실력이 크게 늘었다고는 말하기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좋은 친구들, 훌륭한 선생님들과 함께 지내면서 나는 미국에 있던 한 달간 무엇보다 소중한 것을 얻은 것 같아 기쁘다. 앞으로 다시 이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때 더욱 열심히 하고 싶고 한국에 돌아가서도 영어공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장 동정[8월 16일~8월 31일]

최동익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장은 8월 16일(목요일) 전직 경제 관료와의 오찬을 시작으로 서울시의원과의 면담, 문광부 전 차관과의 만찬 등의 일정을 이어갔다. 이날 데일리중앙 등에는 최동익 의원이 발의한 영세자영업자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방안에 관한 내용이 보도됐다.

17일(금요일)에는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호남권 간담회를 주재한 후 한시련 지부장단 회의에 참석했다.

18일(토요일)에는 김대중 대통령 서거3주기 추모행사에 참석했으며, 다음 날인 19일(일요일)에는 에이블뉴스 등에 최동익 회장이 대회장으로 있는 아시아시각장애인볼링선수권대회 개막에 관한 내용이 보도되었다.

20일(월요일)에는 민주통합당 반값등록금 및 오픈프라이머리 홍보행사에 이어 국민연금토론회에 참석했으며, 경기도재활공학센터가 주최한 국제보조공학심포지엄에 영상 축사를 전했다. 같은 날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 임원진과 현안을 논의하는 것으로 일정을 마무리했다.

21일(화요일)에는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대구·경북지역 및 부산·경남·울산지역 간담회와 아시아 시각장애인 볼링선수권대회 환영만찬을 주재했다.

22일(수요일)에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이날부터 25일(토요일)까지 3박 4일간 백두산 천지, 압록강, 광개토태왕릉비 등을 탐방하는 제8회 전국장애인 활동가대회를 인솔했다.

23일(목요일)에는 연합신문 등에 최동익 의원이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것에 대한 내용이 보도되었다.

25일(토요일)에는 아시아시각장애인볼링선수권대회 환송 만찬을 주재했다. 26일(일요일)에는 뉴스원 등에 제8회 장애인활동가대회 참석에 관한 내용이 보도되었다.

27일(월요일)에는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대표와 면담을 나눈 후,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지방 회장단 간담회를 주재했으며, 같은 날 서울시장애인체육회 부회장과 면담, 시각장애인대학생 장학생 면접 등의 일정을 이어갔다. 이날 오마이뉴스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개정에 관한 내용이 보도되었다.

28일(화요일)에는 5박 6일 일정으로 런던하계패럴림픽 참관 및 참가 선수단 격려를 위해 런던으로 출국했다.

29일(수요일)에는 사회복지법인 등 지방세 영구면제 관련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30일(목요일)에는 뉴시스 등에 사회복지법인 등의 지방세 영구면제 추진에 관한 내용이, 31일(금요일)에는 아시아뉴스 등에 런던장애인올림픽 참관 소식이 보도되었다.

~~~~~

## 알쏭달쏭한 우리말 바로 알기(163)

### 1) ‘예의가 발라서/바라서’ 중 맞는 말은?

-답: 예의가 발라서

-해설: ‘르’불규칙 용언에서의 ‘르’가 ‘ㄱ/ㄴ’로 시작하는 어미와 결합하면 ‘ㄱ라/ㄴ라’로 변한다. 따라서 ‘르’불규칙 용언의 하나인 ‘바르다’는 ‘발라, 발라서, 발라요, 발랐다’ 등으로 활용한다.

-‘르’불규칙동사 예시: 흐르다, 부르다, 빠르다, 가파르다, 이르다, 다르다, 머무르다 등

-참고: ‘르’불규칙 용언의 경우 ‘ㄱ’이 겹쳐 쓰일 때가 있어서인지 ‘ㄱ’을 겹쳐 쓰지 않아야 할 곳에서도 이를 겹쳐 쓰는 경우를 자주 볼 수 있다. 예컨대 ‘부르고, 부르니까, 부르면서, 불려서, 불렀다’ 등으로 써야 맞는데, ‘불르고, 불르니까 불르면서’ 등으로 잘못 쓰는 경우가 일을 흔히 볼 수 있다. 같은 예로 “산이 가팔르니까 조심해서 가자”는 틀린 말이고 “산이 가파르니까 조심해서 가자”가 맞는 말이다.

### 2) 타이어를 ‘값/감/같음’ 어느 것이 맞을까?

-답: 타이어를 값

-해설: ‘타이어를 값’이라는 발음이 표준어이고 ‘타이어를 가름’이라는 발음은 비표준어이다. 표준어 ‘감’을 ‘값’이라고 적고 ‘감’이라고 적지 않는 것은 맞춤법 규정에 의한 것이다.

-예시: 은혜를 베풀(베품, 베풀음은 틀린 말), 부산에서 삶(삼, 살음은 틀린 말), 한 바퀴 돌

(뚝, 돌음은 틀린 말), 한 시간 동안 쭉(쭈, 줄음은 틀린 말)

▶출처: 「우리말 우리글 묻고 답하기(2010년 제3판 발행본)」(태학사 제공)

~~~~~

▶시각장애 관련 기관, 단체 소식은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에서 운영하는 ARS 02-2092-9000 혹은 1577-6655 주간지란의 KBU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